

#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꿈, 호남축 되살아나나

### 朴대통령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식서 공식 언급 2011년 경부선 중심 계획서 제외...재설정 여부 주목

#### ■ 목포·부산을 기점으로 한 유라시아 횡단철도



오는 7월 확정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호남축이 되살아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포함됐다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에서 제외된 유라시아 대륙철도 호남축과 관련 지난 1일 호남고속철도 1단계(광주송정~용산) 개통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언급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이제 한국 철도는 대륙으로 달려 나가야 한다"면서 "호남고속철도도 휴전선을 넘어 아시아 횡단 철도망으로 연결돼 더 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을 향한 대장정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횡단 철도망은 유라시아 대륙철도에 포함된 노선이다.

유라시아 대륙철도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구체화되고 있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ilk Road Express, SRX)로, 한반도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미 연결구간인 북한 철도를 연결해 유라시아 동북부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물류통로를 말한다.

지난 2013년 10월 박 대통령이 유라시아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방안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노선은 부산~나진~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울란우데~모스크바~베를린~파리 만이 언급됐을 뿐 호남축, 즉 목포~서울~원산~청진~나진~시베리아 횡단철도 노선은 거론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광주시와 전남도는 '유라시아대륙철도 호남축 포함 촉구를 위한 합동공청회'를 열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수정계획 등에서 대륙간 철도,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기·종점을 목포·부산으로 하고 있는 만큼 호남축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주제 발표를 맡은 조상필 전남발전연구원 지역혁신연구실장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구체적인 대륙철도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며 "현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부산과 목포·광양이 최상의 방안으로 도출됐다"고 주



“광주로 오세요”...서울 용산역 U대회 홍보 춤

2015 광주국제유니버시아드 대학생 홍보단이 2일 오후 서울 용산역 대합실에서 U대회를 홍보하는 춤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장했다. 또 유라시아 익스프레스의 전제조건으로 국도를 X자형과 박스형으로 연결이 가능한 남북 및 동서 철도망 구축을 꼽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권시대, 대륙철도 연결 중요성 등을 감안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수립 시 호남축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오는 7월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호남축 포함 요청을 포함한 각 시·도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 여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朴대통령 “지역 여론·승객 수요 고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곧 결정해야”

### 이낙연 지사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자리서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논란이 일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사업과 관련해 “지역의 의견과 승객의 수요 같은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곧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낙연 전남지사가 2일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전남 호남고속철 개통식에 참석한 뒤 한국전력을 방문한 박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전남도가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무안공항 경우와 관련해 국토부와 전남도는 광주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노선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광주 송정~나주~

목포를 연결하고 무안공항은 함평에서 지선화해 운행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부와 전남도는 광주 송정~목포 구간 중 43.9km는 신선(新線)을 놓고, 33.7km는 기존선을 보강해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함평에서 무안 공항까지 16.6km만 신선을 놓고 나머지는 기존선을 보강해 활용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 사업비는 국토부·전남도 안대로라면 2조4731억원, 기재부안대로라면 1조3427억원이 소요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호남고속철도 요금 문제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1명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 비례대표 2명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호남선KTX 운행 첫 날, 광주공항·터미널 이용객 수 별 변동 없어

호남선 KTX가 2일 개통됐다. KTX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운행시간·운임료·역(驛) 편의시설 및 주변 교통여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호남선 개통으로 기존 버스·항공 수요가 KTX로 상당부분 옮겨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단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광주송정역 이용객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3964명으로 평소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광주역 이용객들이 대거 이동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공항과 터미널 이용객 수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게 항공사와 터미널 측의 설명이다.

### 요금, 항공료보다 비싸

### 시간단축·운임 인하 필요

### 송정역 편의시설 개선

### 연계 교통망 구축도 시급

이는 KTX가 항공기와 버스 등 기존 운송수단과 소요시간·운임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TX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47분으로 항공기 운행시간 1시간보다 47분 더 소요되는데, 차관을 다루는 승객들에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KTX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최소 운행시간(1시간33분) 편수를 기존 1편(면도기준)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운임요금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KTX 요금은 4만6800원이지만 항공사 측이 경쟁차원에서 광주~김포간 항공료를 4만3800원 선으로 대폭 인하하면서 운임경쟁력이 무의미해졌다. 특히 광주송정역과 용산역 주변 주차장 하루 이용 요금이 2만~4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KTX의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진다.

광주송정역 휴게시설은 물론 역 주변의 교통불편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송정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5000명~

1만3000여 명으로 급증하게 되는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송정역과 연계하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망 구축에 나섰으나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하철과 멀리 떨어진 북구주민들의 경우만 하더라도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하며 전남지역은 송정역~나주 혁신도시 간 버스 노선이 단 하나 뿐이다.

일각에선 코레일이 운행시간 단축 또는 운임료 인하 등 전반적인 손질 없이 KTX 개통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60년 전통의 전국 최대규모 예술꿈나무잔치**  
기존 경연대회 외 전시회, 60년사 발간 등 부대행사, 꿈나무 동용문 전시를 준비합니다.  
성인부문(한국무용, 국악부문) 부활, 장려상 추가 수여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 60주년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일시** 2015. 4. 22(수) ~ 5. 28(토)

**장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음악·무용·국악 부문**  
**신청기간** 2015. 4. 8(수) ~ 4. 15(수)

**미술·작문 부문**  
2015. 5. 18(월) ~ 5. 20(수)

**주최** 광주일보사·(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참가자격** 국내 거주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일부 종목 성인 참가 가능(한국무용, 국악)

**경연기간** 4월 22일(수) ~ 5월 28일(토)

**참가부문** 음악, 국악, 무용, 미술, 작문

**접수방법**  
·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 우편신청: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38(관남로 2가)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담당자실  
·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세부일정은 접수마감후 확정 4월 20일(월) 발표)

**시상**  
· 우수학교상, 우수지도상 수여  
·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개인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단체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문의**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